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일 월요일 음 9월 17일 ((9월))

기상정보

흐리고 아침까지 비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60%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녘.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54) and sunset (18:48).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1/16°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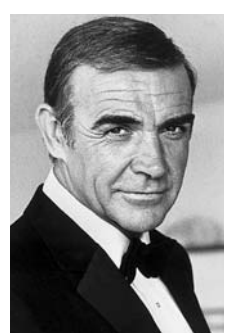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야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for food poisoning and outdoor activities.

월드뉴스

“우유배달부 출신 최고 제임스 본드”

각계 손 코너리 추모 열기

첩보 영화 시리즈 007의 제임스 본드 역할로 세계인의 가슴에 각인된 영국의 원로 영화배우 손 코너리의 별세에 팬들과 정치지도자, 연예계 동료들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



손 코너리.

부심이 있었고, 영국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지지해왔다.

다만, 일부 스코틀랜드인들은 그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강경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을 조소하기도 했다.

코너리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스페인, 바하마, 뉴욕에서 지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항상 그의 겸손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웃음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과 함께 그의 잊지 못할 연기에 계속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계 동료들도 최고 배우인 그의 연기와 인생을 떠올렸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백금탁 정치부장

에로부터 청정제주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맑은 물과 공기가. 그러나 제주가 최근 서귀포지역의 ‘수돗물 유충 사태’로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돗물 유충 사태는 지난달 19~20일 서귀포시 서귀동과 북복동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청정제주’의 부끄러운 민낯

11월부터 ‘갈따구 유충’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곱한 강정정수장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0월 31일 기준, 유충관련 민원은 100건(수돗물 유입 69, 미발견 23, 조사중 8)이다. 서귀포시 동지역 전역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제주에서 가장 물이 좋다는 ‘1강정’ 물의 청정 이미지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질 등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모래인 여과사 교체도 10년을 넘은 등 사실상 시설 관리·운영 상태가 엉망이다.

때문에 서귀포시 동지역 전역으로 유충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됐고,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 사태는 인체에 의한 비중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문제다. 최근 5년간(2015-19)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정도 높아 ‘위험수위’다.

이런 사태로 제주에서 가장 물이 좋다는 ‘1강정’ 물의 청정 이미지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청정제주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 물의 이미지는 도민이나 관광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미세먼지의 경우도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었지만 도내에서 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저감시켜야 하는지를 도당국이나 지역사회는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제주의 미래 산업은 무엇인지 물을 때 그 범점은 ‘그린 뉴딜’에 쩌인다.

열린마당

안전한 생활습관으로 재난사고 예방



장진석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장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리 재난이나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대비해야만 더 큰 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 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760건으로 이중 겨울철 화재가 약 32%인 578건이 발생했고 사망 7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와 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5%로 이를 줄이기 위해년부터 주의하고 대비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첫째, 콘센트에 하나의 전열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는다.

조심하면 안전한 생활이 지속되지만 방심하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노출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가장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5%로 이를 줄이기 위해년부터 주의하고 대비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고령 친화 동네,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다



김상현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유엔(UN)은 올해 5월 발간한 ‘코로나19와 노인인권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 끼칠 영향으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 거부, 보호 및 요양시설에서의 방치와 학대, 빈곤과 실업의 증가, 행복과 정신건강 악영향 낙인과 차별을 꼽았다.

특히 노인들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최근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높은 치명률을 감안해 노인층 스스로 감염 방지를 위한 겨울철 대비 방역당국의 예방조치에 협조해 실천해야만 한다.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5060 가가호호 안부 확인 서비스 및 이웃들의 안심주말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이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동네에서 배우고 나누며 보람 있게 늘어갈 수 있는 곳,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함께 보살피고, 나도 돌봄 받을 수 있을 곳, 동네에서 잘 늙어 가기라는 것은 이런 일들의 가능한 행복한 연동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제일사) featuring a man in a suit, a table of membership benefits, and a map of the location.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various potted plants, a storefron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